문화人

“명상과 예술이 만나면 삶은 풍성·사랑은 두 배”

테라피 디렉터 권민희 대추씨 대표

사회적기업 대추씨의 권민희 대표는 오랜 수행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오늘의 대추씨를 창업 각 기관과 기업 등에 힐링 프로그램을 전해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추씨는 망치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서 새들도 먹지 못하는 씨앗이지만 잘 돌보고 가꾸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씨처럼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한 기업이 바로 문화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추씨입니다.”

명상춤을 기반으로 음악과 미술 심리치료 등을 접목한 대추씨프로젝트는 대중들에게 놀이를 통한 힐링을 전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추씨의 권민희 대표는 오랜 수행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오늘의 대추씨를 창업했다.

“처음부터 창업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어른이 놀이터’라는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다양한 문화와 접목해 치유가 되고 자기 삶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죠.”

권 대표는 ‘대추씨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0년 청년 모임을 시작해 2012년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2기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대추씨’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영화 사진 미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해왔으며 2013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주관하는 H온드림 펠로우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기업 단체 등의 지원 서비스는 물론 다문화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추씨의 어른이놀이터는 주목받는 프로그램이다. 춤명상-그림 치유-글쓰기 등을 통해 내면 치유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치유프로그램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권

명상춤 기반으로 미술 음악 등 접목한 ‘어른이 놀이터’ 개발 각 기관 학교 등서 외부 강연 기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표 자신이 내면을 치유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에너지들이 집약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108배 수행, 위빠사나 명상 등을 해왔어요. 여기에 춤명상, 요가, 애니어그램 등을 배워왔죠. 처음에는 제 내면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미술전시와 결합한 드로잉 힐링 서클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동양화가 안진의 작가와 함께 한 ‘드로잉 힐링 서클’은 관람객이 표현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림 관람-소감나누기 및 토론-스트레칭-춤명상-명상-자기만의 만다라 그리기 순으로 진행, 심신을 치유하는 공동체 명상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드로잉 힐링써클은 공유와 소통을 테마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에요. 관람객이 단순히 관람의 객체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 주체가 되어 소통할 수 있었고 작가 또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작가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도가 컸어요.”

현재 자아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권 대표는 앞으로 좀더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012년이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면 2013년은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임상심리상담가 비폭력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그간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죠.”

현재, 대기업 학교 기관 등에서 대추씨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권 대표는 미소 짓는다. “앞으로 명상과 예술을 접목한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로 대중들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내면의 사랑을 길어 올릴 수 있었으면 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인순이와 좋은사람들이 주최하는 다문화캠프에서 부모 힐링 프로그램 진행

작가와 관람객이 하나의 예술가가 되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드로잉 힐링 서클’

밤새도록 두견새 소리나 들었으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⑥ 서거정과 수종사 ㊦

나한도량으로 이름난 수종사 응진전 내부.

해박한 지식과 은근한 공감

〈성종실록〉에는 서거정이 불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사찰을 읊은 시나 스님들에게 써 준 시편에서는 해박한 불교적 소양이 묻어난다.

용진강상고가람(龍津江上古伽藍)
석경기구입취삼(石徑崎嶇入翠杉)
억석루요영운과(憶昔屢邀靈運過)
지금유조원공담(至今猶阻遠公談)
계변주발용응복(溪邊呪鉢龍應伏)
석상번경호응참(石上 經虎應參)
백멸청혜오역재(白 靑鞋吾亦在)
상봉일소호계남(相逢一笑虎溪南)

용진강 위의 옛 절을 찾아 오르노라니
구불구불 돌길이 삼나무 숲으로 들어가네.
옛날에 영운의 발길은 자주 맞았으련만
지금은 원공의 말을 들을 길이 없네 그려.
시냇가에서 주문 외우면 용이 발우에 숨고
돌 위에서 설법하면 범도 응당 참여할 테지.
흰 버선 푸른 짚신이 나에게도 있거니
서로 만나 호계에서 한번 껄껄 웃어 보세.
–서거정 ‘수종사’ 〈사가집〉 보유편 3권

〈동문선〉에는 이 시가 ‘기수종사윤선로(寄水鍾寺允禪老)’ 즉 ‘수종사의 윤 선사에게 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수련도 약간 다른데 ‘龍江上山古伽藍 細經崎嶇入翠杉’로 시작된다. ‘수종사’란 제목은 서거정 자신이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가 〈사가집〉의 보유편에 수록되었고, ‘기수종사윤선로(寄水鍾寺允禪老)’란 제목은 서거정 자신이 편찬한 동문선에 실린 것이다. 해석에 있어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내용상 이 시는 ‘윤선로(윤이라는 이름의 선승)’에게 써준 시가 맞다.

시의 도입부인 수련에서 서거정은 수종사로 가는 길의 풍경을 묘사한다. 용진강은 양수리를 용나루(龍津)라 하고 강을 용강이라 부른데서 온 말이다. 함련에서 서거정은 중국 남조(南朝) 때의 문인 사영운(謝靈運)이 산을 좋아 했던 것을 인용해 자신과 일체화 하고, 명유(名儒)인 도잠(陶潛), 육수정(陸修靜) 등과 친밀했던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혜원(慧遠)을 끌어들여 ‘윤선로’를 빗대고 있다.

경련에서도 중국의 고승 섭공(涉公)과 축담유(竺曇猷)를 인용, 수도승의 법력을 노래하고 있다. 섭공(涉公)은 진대(晉代)의 고승(高僧)인데, 기우(祈雨)를 행할 때에 주문을 외워서 용을 굴복시켜 자신의 바리때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큰비를 쏟아지게 했다는 고사가 있다. 용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고승의 신통한 법력(法力)을 의미한다. 또 진(晉)나라 때의 고승(高僧) 축담유(竺曇猷)가 풍성(城)의 적석산(赤石山) 석실(石室)에서 불경을 외고 있을 때 호랑이 수십 마리가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한 호랑이만 잠을 자고 있으므로 축담유가 지팡이로 자는 호랑이의 머리를 두드리면서 “너는 왜 경을 듣지 않느냐?”라 꾸짖으니, 모든 호랑이들이 다 설법을 들었다는 고사다. 이 역시 고승의 신통한 법력을 가리킨다.

미련의 ‘흰 버선’과 ‘푸른 짚신’은 두보(杜甫)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세속을 떠나 초탈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호계에서 만나 껄껄 웃는다는 것 또한 여산 혜원 스님의 일화에서 나온 ‘호계삼소’를 인용한 것으로 격의 없고 시공을 초월한 경지를 의미한다.

결국 서거정은 수종사의 선승을 찾아가며 다양한 고사들을 통해 불가의 심오한 수행과 그 초월적 경지에 이르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세속과 산사의 간격

서거정은 수종사의 윤상인(允上人 상인은 스님의 별칭)과 깊이 교류했다. ‘윤상인이 짚신을 보내 준 데 대하여 사례하다(謝允上人送芒鞋)’는 칠언절구를 남기기도 했다. 이 시에서도 ‘오늘 짚신 부쳐준 게 응당 뜻이 있으리(今日寄鞋應有意) 한번 찾아가 선창의 담화를 나눠야겠네(相尋一去話禪窓)’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용진강상고초제(龍津江上古招提)
아욕심사거불미(我欲尋師去不迷)
량이막문진세사(兩耳莫聞塵世事)
통소좌청두견제(通宵坐聽杜鵑啼)

용진의 강가엔 오래된 고찰이 있는데
내가 스님 찾아가려면 길도 모르지 않거니
두 귀로 속세의 일은 죄다 듣지를 말고
밤새도록 앉아서 두견새 소리나 들었으면.

산승장여영운한(山僧長與嶺雲閑)
장재산간불출산(長在山間不出山)
아타홍진공백발(我墮紅塵空白髮)
입산무계재인간(入山無計在人間)

산승은 길이 산 구름과 더불어 한가하여
산속에만 길이 머물고 산을 나오지 않는데
나는 속세에 떨어져 헛되이 늙어 버린 채
산에 들어갈 계책 없어 인간에 남아 있네.
–서거정 ‘기수종윤상인 2수’ 〈사가집〉 제28권

앞의 시는 탐진치가 묻어 있어 번뇌만 키워주는 세속의 소리를 듣지 말고 수종사 스님 곁에 가서 밤새 소쩍새 소리나 듣고 싶은 심사를 담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뒤의 시 역시 속세에서 허망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산에 들어 갈 계획조차 없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서거정은 격변의 시대를 매우 호사롭게 살아간 관료이고 지식인이며 시인이었다. 수종사와 관련한 시들을 보면, 그의 처세(處世)를 두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의 정신은 현실안주 보다는 초월적인 이상향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